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 낙원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벧전3:18-22

근 1년 동안 요한복음 강해,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마무리하면서 드디어 붙잡혀서 빌라도에게 십자가형을 선고 받고 다른 2명의 죄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심
복음의 핵심: 고전15:3-4,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고 묻히고 부활하심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요19:30). 인류의 모든 죄가 그분에게 놓이고 그분이 죄가 되고 하나님은 그분을 외면하시고 지옥 형벌을 받으시고 결국 오후3시경에 돌아가심
< > 대신 속죄 말고 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는가? 십자가 처형으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동안 정확히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 모든 결과, 지옥에 대한 교육 설교

그리스도의 고난

우리의 구원의 대장이신 그리스도께서도 몸소 고난을 당하셨다(히12:2).

18절: 그리스도의 단번 대신 속죄,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우리 같은 자들)를 대신하여 한 번 고난을 당하심. 신구약성경의 핵심, 복음의 핵심, 목적: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시려고. 그런데 단순히 그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18절은 원래 For로 시작된다. 즉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기 때문이다. '왜냐하면'이 사용되면 그 이전의 말씀들을 보아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고난

베드로는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베드로전서를 기록하였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서운 핍박이 있었다.

13절: 우리가 선한 것을 따르면 원래는 우리를 해할 자가 없어야 한다.

14절: 그러나 의로 인해 고난당하는 경우가 있다(마5:3, 6, 10-12). 이 경우 우리는 행복한 자다. 그들이 두렵게 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15절: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라.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여기고 그분의 권능, 위대하심에 탄복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라(마6:9)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온유하게 대답하라. 간증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딤후1:5, 19-20, 그리스도인의 양심이 작동하지 않으면 타락하여 멸망한다.

17절: 잘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들 킹제임스 성경, 신약 교회, 은혜 구원, 환난 전 휴거, 이것들을 외치면 고난이 온다.

바울, 구원받기 전에는 No problem,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자 죽음이 그를 따라다님. 마귀가 미워함.

왜 우리가 고난을 받는가? 18절, 왜냐하면 예수님도 고난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대신속죄 맞는다. 그런데 동시에 믿음 생활을 할 때 고난이 올 수 있음을 보여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친히 고난을 당하셨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22절, 고난 다음 영광

복음의 핵심: 십자가와 부활(롬10:9-10)

19-20절: 예수님의 죽음부터 부활까지의 사역, 고전15;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심
오늘은 사흘 동안 묻히신 때의 행적과 결과를 살펴보려고 한다.

예수님의 매장

예수님의 몸은 처형 당일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놓였다. 그리고 사흘 뒤에 부활하셨다.

그 동안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을까?

누가복음 23장 십자가 처형 장소, 두 명의 죄수

두 사람 가운데 하나가 죽기 전에 회개함 39-43

(*) 42,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43).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 죄수가 천국에 간 것으로 생각함

(*) 신약 시대 성도들, 죽으면 곧바로 주님과 함께 있다(빌1:23; 고후5:8).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느니라. 그것이 훨씬 더 좋으나(빌1:23)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고후5:8).
대피소 등 No!

그러나 예수님 당시 아직 구약시대, 구약시대 성도들은 죽으면 곧바로 천국으로 가지 않았다.

(* 예수님의 말씀(마12:40), 행2:25-27(시16:8-12)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배 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 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행2:27).

땅의 심장부(중심부), 여기를 지옥이라고 한다.

시16:10의 지옥 히브리어 스올, 죽은 자들이 가는 곳, 신약성경, 하데스, 같은 의미
지옥은 말 그대로 땅속에 있는 감옥이다. 즉 지구의 한중간에 있는 지하 세계를 나타낼 때 스올, 하데스가
쓰였고 지옥으로 번역되었다. 그런데 지하 세계는 몇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지하세계(Underworld)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 구약 시대, 지하세계

(* 눅16:22-23,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그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더라.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 지하 세계: 지옥으로 표현된 뜨거운 부분이 있고 편안하게 지내는 아브라함의 품이 있다. 그 사이에
건너갈 수 없는 구렁텅이가 있다(16:26). 이것은 밑바닥이 없는 구렁텅이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종합 정리: 그러니까 영어와 우리말로 지옥이라 표현된 곳은 두 개 중 하나를 가리킨다.

1. 구약시대 모든 사람들이 죽으면 가는 곳 즉 지하 세계(스올, 하데스)
2. 지하 세계에서 뜨거운 불로 고통을 받는 곳
3. 누구나 앞뒤 문맥으로 구분할 수 있다. 행2:23의 지옥 즉 예수님의 혼이 놓인 지옥은 넓은 의미의
지하 세계이고 눅16장에서 부자가 놓인 지옥은 좁은 의미의 뜨거운 부분이다.

아브라함과 성도들이 있는 아브라함의 품이 곧 낙원이다. Paradise

구약 시대의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죽으면 천국이 아니라 낙원으로 갔다.

우리 예수님도 그 낙원으로 가셨다. 그 죄수도 낙원으로 갔다. 땅의 중심부, 심장부

지하 세계 다시 설명, 지옥, 낙원, 무저갱, 타르타로스, 불 호수

타르타로스 창6:1-4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다(욥1:6; 2:1; 28:7). 이들은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버리고 처소를 떠나 땅에 내려와 타락하였다(유6). 거인 종족을 생산하였다.

묻히신 동안 주님이 하신 일(벧전3:19-20)

성령님의 파워에 힘입어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심(19)

19절에서 '선포하다'로 번역된 그리스어는 복음을 선포하다는 의미의 '유앙겔리조'가 아니라 선언하
는 의미의 '케뤼소'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그 영들에게 일방적으로 자신의 승리를 선포하셨다.

천주교회에서는 이곳을 연옥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셨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런
내용이 아니다. 승리를 선포하셨을 뿐이다. 죽음 이후에 또 다른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

(* 우리말 사도신경

(* 영어, 원어, 천주교의 사도신경에는 'He descended into hell'이 있지만 개신교 것에는 이 부분이
삭제되어 없다. 카톨릭 교회에서는 그분께서 저승에 갔다고 버젓이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

(* 천주교 사도신경: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저승(고성소)에 내려가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고성소: 착하게 산 구약의 성인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던 곳
원래대로 사도신경을 번역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시고 지옥에 내려가셨다"로
해야 한다. 한국의 개신교는 연옥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빼 버림.

영어에는 그대로 남아 있음.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강도에게 약속하신 대로 낙원에 즉 지하세계에 내려갔다가 올라오셨음을 보여 준다.

(*) 사도 바울 역시 에베소서 4장 8-10절에서 이렇게 말한다. 내려가셨다가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이끌고 가셨다. 즉 낙원을 통째로 옮기셨다.

(*) 그래서 이제는 지하 세계에 낙원이 없고 셋째 하늘에 있다. 고후12:2, 4
둘째 기회가 주어지는가? No!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히9:27)

연옥: 카톨릭 교리에서 연옥은 천국으로 가기에는 자격이 부족하지만 지옥으로 갈 정도의 큰 죄를 짓지 않은 죽은 자들의 영혼이 머무르는 곳이다. 영혼들은 연옥에서 보내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해 이승에서의 죄를 씻고 정화한다. 연옥이 정죄계(淨罪界, 깨끗함과 죄 사이의 경계)나 정화소(淨化所, 깨끗해지는 장소)로 불리는 것은 이 때문이다.

연옥은 없다. No! No!

20절: 이 영들은 노아 시대에 불순종하던 영들이다. 모든 시대에 걸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아니다. 노아 시대에 불순종하던 영들, 기본적으로 성경은 사람을 영이라고 하지 않는다. 천사를 가리켜 영이라고 한다(히1:7).

유6, 벰후2:4의 영들,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 따로 간혀 있다. 타르타로스에 아마 이것이 정상적인 해석일 것이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노아 시대에 불순종하던 사람들로 본다. 이 경우 지옥에 간혀 있는 사람들

- a. 방주 안에서 물에 의해 구원받은 자들은 8명이다.
- b. 120년 동안 노아가 의의 선포자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였으나 아무도 믿지 않음(벰후2:5).
- c. 물은 모두를 멸절시켰지만 오히려 물에 의해 구원받은 자들이 있었다.

21절: “침례가 우리를 구원한다.” 맞는가? Yes and No! 성경은 앞뒤 문맥을 잘 보고 해석해야 한다.

- a. 물 침례는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 그 어떤 종교 행위도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
- b. 여기서의 그냥 침례가 아니다. 그 일과 동일한 모형(figure)인 침례이다.
- c. 그러면 그 일은 무엇인가? 물에 의해 구원받은 일, 모형은 figure(수자)이다. 사과 3개, 수자로 3이라고 쓴다. 3은 사실 사과가 아니다. 사과 세 개가 진짜 사과이다. 침례는 수자 3과 같고 그 일의 실체는 죽음을 통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노아 당시의 물(사람을 죽이는 도구 혹은 죽음 자체)이 사람을 구원했듯이 사실 죽음이 그분을 승리하게 만들었다. 바로 그 일의 모형이 곧 침례이다.
- d. 침례의 가장 큰 의미는 그분과 동일시되는 것이다. 눅12:50, 침례는 1차적으로 죽는 것이다. 묻히는 것이다, 부활하는 것이다.
- e. 그래서 베드로는 침례를 가리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응답하는 것’이라고 함. 그러므로 여기의 침례는 물 침례가 아니다. 예수님과 동일시되기 위해 반응하는 것이다.

22절: 이렇게 고난당하신 결과 주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시110:1) 모든 영적 존재들이 그분께 복종한다.

결론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고 결국 영광을 얻으셨다(빌2:5-11).

대신 속죄, 하나님의 일 마무리

동시에 성도들도 의로 인해 고난을 당하는 일이 반드시 생긴다.

그런데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주신 것같이 영광으로 갚아 주신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고난의 의미이다. 부활의 날이 있는 4월에 이런 의미를 살피고 기억하자.